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ICT 수출 영향 분석

*최승주, 장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bs3@iitp.kr, yeaji@iitp.kr

Impact Analysis of U.S. Tariff Policy Changes on South Korea's ICT Exports

Choi Seung-Joo*, Jang Yeaji,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IITP)

요약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시행된 상호관세 정책(기본 10%, 한국 등 주요국 최대 25%, 이후 정상회담 합의로 15% 조정)과 ICT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ICT 품목 20개가 무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ICT 對미 수출의 약 55.7%가 보호되었으나, 유예 종료 시 품목별 관세 확대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도체·SSD·스마트폰은 경쟁우위를 유지하나, 디스플레이·휴대폰 부품·통신장비는 구조적 리스크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 확충, 공급망 다변화, 고부가가치 중심 전환과 함께 정부-민간 공동의 기술 자립 대응이 요구된다.

I. 서론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우선주의 실현을 목표로 고율 관세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2025년 2월에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고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어 4월부터는 57개국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한국의 경우 초기 25%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으나, 7월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었고, 한국은 對미 0%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제시[1]하였으며 후속협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전략품목에는 개별적 품목관세가 도입되었고, 미국산 완성차의 해외 부품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 완화조치가 병행되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시행했으며, 5월 제네바 협상에서는 양국이 초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8월에 90일 추가 연장되었으나 반도체·회도류·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지속되었다[2].

이러한 변화는 한국 ICT 산업의 對미 수출 구조, 공급망 안정성, 가격 경쟁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미국은 2025년 4월 11일 관세국경보호국(CBP) 공지를 통해 ICT 핵심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면제 품목에는 컴퓨터·서버(HS8471), 스마트폰(HS8517.13), SSD·메모리카드(HS8523.51), 반도체 소자(HS8541), 반도체 제조장비(HS8486), 통신 네트워크 장비(HS8517.62) 등이 포함되며[3], 이는 금액 기준 우리나라 對미 ICT 수출의 55.7%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면제조치는 비영구적이며, 2025년 8월 1일 유예종료가 되어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對미 ICT 수출의 29.0%가 25% 관세 대상이 되었다.

또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제조장비의 국가안보 영향 평가를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관세·수입제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2. ICT 수출입 현황

2024년 한국의 ICT 수출은 2,350.5억 달러, 수입은 1,429.1억 달러로 92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무관세 적용의 효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5].

- 반도체: 733.1억 달러(+11.4%), DDR5·HBM 등 고부가 제품 중심 성장
- 디스플레이: 87억 달러(△13.9%), LCD 축소 및 중국 OLED 수요 둔화
- 휴대폰: 60.8억 달러(+9.1%), 무관세 적용 및 갤럭시 S25 판매 호조
- 컴퓨터·주변기기: 66.4억 달러(+10.8%), SSD 중심 성장
- 통신장비: 11.6억 달러(△2.5%), 베트남 의존 구조로 부진

수입 측면에서는 반도체(359.8억 달러, +7.3%)와 SSD 역수입이 증가했으며, LCD 수입은 감소했다. 對중 수입 의존도는 낮아지고, 미국·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이 확대되었다[5].

3. 품목별 영향 분석

(1)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점유율 63%로 단기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투자(텍사스·인디애나)가 관세 리스크를 완충한다[6]. 그러나 CHIPS Act 보조금 축소 및 단품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시스템 반도체는 점유율 2.4%로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관세보다 기술·설계 생태계 강화가 본질적 과제이다. 엔비디아·퀄컴 대비 기술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6].

(2) SSD

SSD는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수출의 71.9%를 차지하고, 삼성전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자·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거점이 한국(58%)과 중국(42%)에 집중되어 있어, 유예 종료 시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리스크가 존재한다[7].

(3) 디스플레이

OLED 경쟁력(세계 점유율 33.6%)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나, 모듈·세트 생산지(베트남 46%, 중국 30%)의 고관세 적용으로 간접적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멕시코산 TV에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8].

(4) 휴대폰

완제품은 면제 대상이나, 부품 수출의 70.7%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중국발 관세 리스크가 크다. 삼성전자는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갤럭시 S25 판매 호조를 기록했으나, 인도·베트남 생산기지는 고율 관세 적용으로 중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9].

(5) 통신장비

국내 업체는 에릭슨·노키아 대비 기술·가격 경쟁력이 낮아 관세 부과 시 美 시장 진입이 더욱 제약된다. 다만 오픈랜·6G와 같은 신규 기술 분야에서는 틈새 경쟁력이 확인되며, 글로벌 시장 전망(오픈랜 2030년 209억 달러, 6G 2035년 686.9억 달러)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10].

[3]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pecial Tariff Exemption List (HS Codes)”, Apr. 11, 2025.

[4] U.S. Department of Commerce, Section 232 Investigation Report, 2025.

[5] IITP·한국무역통계진흥원, 「ICT 수출입 동향」, 2025.6.

[6] Gartner,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2024 - 2025”, Apr. 2025.

[7] Omdia, “Global SSD Market Share Report”, Apr. 2025.

[8] Omdia, “Display and Smartphone Shipment Data”, Apr. 2025.

[9] Counterpoint Research, “On-device AI Smartphone Market Outlook”, 2024.

[10] MarketsandMarkets, “Open RAN and 6G Market Forecasts”, Aug. 2024.

[11] CNBC, “US Consumer Spending Impact of Tariff Policy”, May 2025.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ICT 주요 산업군은 단기적으로 관세 면제 효과로 수출이 유지되나, 유예 종료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된다.

- 반도체·SSD: 글로벌 점유율로 단기 충격 완화 가능하나, 단품 관세 확대 시 수익성 저하 우려
 - 디스플레이·휴대폰: 고관세 생산지 구조로 간접 충격 상존, 공급망 재편 필요
 - 통신장비: 기술 열세 지속, 다만 신규 분야에서 기회 확보 가능
- 정책적 대응을 위해 (1)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현지화, (2) 공급망 다변화와 부품 국산화, (3) R&D 강화 통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제고, (4) 시나리오 기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III. 결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ICT 수출에 단기적으로 제한적 충격을 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와 SSD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대응 가능하나, 디스플레이·휴대폰·통신장비는 구조적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관세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민간은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현지화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구조적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ACKNOWLEDGMENT

본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조선일보, “한미 정상, 상호관세 15% 합의 및 한국의 對美 3,500억 투자”, 2025.7.31.

[2] Geneva Economic & Trade Meeting Joint Statement, May 12, 2025.